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08/2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1-수특 고전시가 08 1~3

[01~0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어저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아
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(軍士逃亡) 네로고나
 허리 위로 붙잡으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
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* 노닥노닥
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* 뒤에 간다
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옆쳐지리
 내 고을의 양반(兩班) 사람 타도타관(他道他官) 옮겨 살면
 천(賤)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(本土)* 군정(軍丁) 싫다 하고
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
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
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
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(獬皮)* 잡아
 공채(公債) 신역(身役)*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
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
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
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
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
 어와 생원인지 초관(哨官)*인지
 그대 말씀 그만두고 ㉠이내 말씀 들어 보소
 이내 또한 갑민(甲民)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냐
 우리 조상 남중 양반(南中兩班) 진사 급제 계속하여
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(侍從臣)*을 다니다가
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(全家徙邊)*한 후에
 극변방(極邊方)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
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(邑中) 구실 첫째로다
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
 유사(有司) 장의(掌儀)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
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(怨讐人)의 모해(謀害)로써
 군사 강정(降定)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
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(充軍)* 되거고야
 누대봉사(累代奉祀)*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
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
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
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(三兩五錢) 돈피 두 장 의법(依法)*이라
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(四十六兩)
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*인들 당할소냐
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(入山)하여
 허항령(虛項嶺) 보태산(寶泰山)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
 인삼 짝은 전혀 없고 오가*있이 날 속인다
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
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(獬皮山行) 하려 하고
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
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앞갈나무로 모닥불 놓고
 하나님께 축수(祝手)하며 산신(山神)님께 발원(發願)하여
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* 일기 원하되
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 아니 붙네

(중략)

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(九重天門) 멀어 있고
 요순(堯舜) 같은 우리 성주(聖主) 일월(日月)같이 밝으신들
 불점성화(不沾聖化) 이 극변(極邊)에 복분하(覆盆下)라 비칠소냐
 그대 또한 ㉡내 말 듣소 타관 소식(他官消息) 들어 보게
 북청 부사(北靑府使) 뉘실런고 성명(姓名)은 잠깐 잊었네
 많은 군정 안보(安保)하고 백골 도망(白骨逃亡) 원통함 풀고
 각대 초관(各隊哨官) 여러 신역 대소민호(大小民戶) 나눠 걷으니
 많으면 닷 돈 폰수 적으면 서 돈이라
 인읍(隣邑)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(男負女戴) 모여드니
 군정 허오(軍丁虛伍)* 없어지고 민호(民戶) 점점 늘어 간다
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
 북청 일례(北靑一例) 하여지라 영문(營門) 의송(議送)* 정(呈)탄 말가
 본읍(本邑) 맡겨 제사(題辭)* 맡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
 불문시비(不問是非) 올려 매고 형문(刑問)* 한 번 맞았던 말가
 천신만고(千辛萬苦)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
 이웃 친구 하직(下直) 없이 부로휴유(扶老携幼)* 한밤중에
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(金昌嶺)을 허위 넘어
 단천(端川)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(聖大山)을 넘어서면
 북청 땅이 괴 아닌가 거처호부(居處好否) 다 떨치고
 모든 가족(家屬)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
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(離親棄墓)* 하올소냐
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
 충군애민(忠君愛民)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*
 군정도탄(軍丁塗炭)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
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
 이 영로(嶺路)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
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
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만나마 모자라리
 일모충충(日暮怱怱)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

- 작자 미상, 「갑민가」 -

- * 잠방이 :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.
- * 전태발이 : 다리를 저는 사람.
- * 본토 : 본디의 고향.
- * 돈피 : 담비 모피.
- * 신역 :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.
- * 초관 : 조선 시대에, 한 초(哨)를 거느리던 중구품 무관 벼슬.
- * 시종신 :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.
- * 전가사변 : 조선 시대에,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, 함경북도와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.
- * 충군 : 조선 시대에, 죄를 범한 자를 별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.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함.
- * 누대봉사 :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.
- * 의법 : 정해진 법.
- * 석송 :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.
- * 오가 : 두릅나뭇과의 활엽 관목.
- * 사망 : 장사의 이(利)가 많이 남는 재수.
- * 군정 허오 : 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던 지방의 장정.
- * 의송 : 조선 시대에,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

게 올리던 민원 서류.
 * 제사: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(訴狀)이나 원서(願書)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.
 * 형문: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.
 * 부로휴유: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보살핌.
 * 이친기묘: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는 버림.
 * 빌이시면: '빌려주시면'으로 추정됨.

1. ㉠과 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에서 제시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 ㉡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.
- ② ㉠에서 제시된 개인의 고난이 ㉡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.
- ③ ㉠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, ㉡은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.
- ④ ㉠은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, ㉡은 상대방에 대해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⑤ ㉠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비애감을, ㉡은 전해 들은 정보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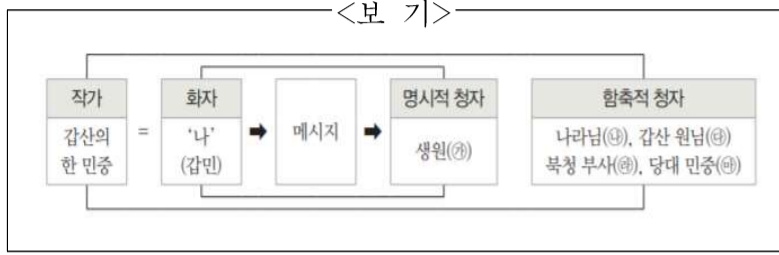
2. 다음은 윗글에 대한 어느 학생의 '수행 평가지'이다. ㉠~㉡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수행 가평지]
 「갑민가」는 갑산에 살았던 민중의 노래로, 나는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에서 대화 형식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게 되었다. 그래서 생원과 갑민의 대화 속에 드러난 각 각의 입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.

	생원	갑민
주 장	갑민은 갑산에 머물러야 한다.	나는 갑산을 떠나야 한다.
근 거	- 갑산을 떠나더라도 예상 되는 문제점이 있다...㉠ - 갑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..㉡	-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본 경험상 갑산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...㉢ -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...㉣ - 북청 지역은 갑산과 다른 상황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..㉤

- ① ㉠: 타관으로 옮겨 살면 천한 신세가 되기 쉽다.
- ② ㉡: 인삼을 캐고 돈피를 잡아 신역을 갚고 살면 된다.
- ③ ㉢: 친족들의 신역도 책임져야 해서 돈을 남길 수 없고 인삼은 찾기 어렵다.
- ④ ㉣: 이웃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과 단친 땅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.
- ⑤ ㉤: 부사님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북청은 백성들이 살기에 좋다.

3. 윗글의 소통 구조를 <보기>와 같이 도식화할 때,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

- ① 작가는 행위가 서로 다른 ㉡와 ㉢의 대조를 통해 ㉡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- ② 작가는 화자가 ㉡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㉢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.
- ③ 작가는 미래에 ㉣가 감산을 떠나려는 자신의 현재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.
- ④ 작가는 ㉣가 ㉡에 속하는 인물임을 인식하며 이들의 삶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.
- ⑤ 작가는 ㉣ 중에 북청으로 옮겨 간 사람들을 바탕으로 ㉡에 대한 불만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.